

# 여수 · 울산단지 1/4분기 양호

산자부, 1/4분기 전망BSI 109 ... 산업단지 평균 BSI 111

2006년 1/4분기 기업체감경기가 2005년 4/4분기에 비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724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1/4분기 국가산업단지 경기전망>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1로 나타났다.

BSI가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경기호전을, 100 미만은 경기부진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국가산업단지 BSI 전망치는 2005년 1/4분기 92, 2/4분기 120, 3/4분기 108, 4/4분기 111을 기록해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100을 넘는 호조세를 나타냈다.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성장세 유지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든 업종이 2005년 4/4분기보다 호조를 예상했고 운송장비BSI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완만한 성장 지속 등으로 BSI가 109를 기록했으며, 기계 111, 석유화학 109, 목재·종이 108, 철강 103 등이었다.

## 경기전망 BSI 비교(2006.Q1)

구 분	BSI	구 분	BSI
음식료	105	철 강	103
섬유·의복	107	기 계	111
목재·종이	108	전기·전자	109
석유화학	109	운송장비	126
비금속	105	평 균	111

수출은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세 유지와 중동지역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 업종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BSI 전망치가 110을 기록했다.

내수는 증시 활황 및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소비여력 증대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돼 BSI가 105를 나타냈다.

고용BSI는 107, 가동률은 112를 기록했으나 제조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BSI는 99, 자금사정BSI는 98에 그쳤다.

<화학저널 2006/01/02>